2. 논술고사 문항카드 제출 양식 :『문항카드』

2-1. 문항카드 ① <인문계열 1회차 1번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교시) / 문항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60분	

2. 문항 및 자료

〈가〉

"얘들아, 너희 말을 엿들은 걸 용서해 주렴. 하지만 너희가 바로 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듣지 않을 수 없었다. 피터, 조금 전 고든한테 했던 얘기, 다른 친구들한테도 해 주겠니?"

피터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제가 만약 배우가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하고 말이에요."

"그래. 넌 고든에게 최고의 기회를 갖기 위해 미국에 가야겠다고 말하고 있었지." 루시 선생님이 말했다.

피터는 다시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루시 선생님은 이제 우리 모두를 향해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나쁜 뜻에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줄곧 들려오고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게 허용되고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 다른 누군가가 너희한테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말해 주마. 내가 볼 때 문제는 너희가 들었으되 듣지 못했다는 거야. 너희는 사태가 어떻게 될 건지 듣긴 했지만, 아무도 진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감히 말하건대 난 그렇지 않아. 너희가 앞으로 좋은 삶을 살려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을 알아야 하고, 그것도 제대로 알아야 해. 너희 중 아무도 미국에 갈 수 없고, 너희 중 아무도 영화배우가 될 수 없어. 또 일전에 누군가가 슈퍼마켓에서 일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너희 중 아무도 그럴 수 없어. 너희 삶은 이미 정해져 있다. 성인이 되어 중년이 되기도 전에 너희는 기증을 시작하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너희 각자가 만들어진 이유지. 너희는 비디오에 나오는 배우들과 같은 인간이 아니야. 심지어 나와도 다른 존재들이다. 너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왔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희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얼마 안 있어 헤일셤을 떠날 것이고, 머지않은 날에 첫 기증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올 거야.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앞으로 좋은 삶을 살려면, 너희 모두는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들 앞에 어떤 삶이 놓여 있는지 알아야 해."

루시 선생님은 우리들이 실제 인간을 모델로 하여 인간에게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 태어난 클론이라는 것, 헤일셤은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학교라는 것, 기증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얼마간 간병인 일을 하게 된다는 것, 일반적인 기증의 간격, 회복 센터에서의 생활 등 '도너'(donor)로서의 운명에 대해 설명했다.

〈나〉

생명공학 분야의 과학자들은 모두 인간의 장애나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야 인간의 몸과 마음을 개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힘으로 더 뛰어난 학습 능력과 기억력, 강한 근육, 그리고 더 긴 수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자신을 개조하는 이러한 힘이 사회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2000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생명공학 분야의 문제에 대해 조언해 줄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2004년 《치료의 한계를 넘어》라는 보고서에서 유전자 조작 및 복제 기술은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부모 자식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노화를 늦추는 것은 나이 든 사람들이 계속 권력에 집착하도록 만듦으로써 사회적 정체를 유발할 것이며, 또 인간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기술은 안전성이 보장돼 있지 않고 빈부 격차를 더욱 넓혀 분배 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자문위원회는 주어진 자연적 상태를 존중해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오만이며,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론할 수 있다. 우선 인간의 능력 강화를 주장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치료와 능력 강화는 밀접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없다. 알츠하이머병, 심장병, 암 등에 대한 치료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증강하는 연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게다가 생명공학 연구를 실제적으로 금지할 수도 없다. 만일 우리의 신체 능력을 강화하고 생명을 연장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약물이 발견된다면 세상의 어떤 규제도 그 약의 확산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에는 '자유'의 문제가 놓여 있다. 인간의 심신을 바꿀 권리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있는가, 아니면 국가에 있는가? 민주 사회에서 그런 결정은 각 개인이 하는 것이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다. 서구 민주주의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독립선언도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조물주에 의해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돼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꾸고 개선하려는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 모두가 지닌 근본적 특징 중의 하나다. 인간이란 종은 지금까지 늘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더 오래 살 방법을 찾아 왔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백신 접종이나 수혈 등도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부자연스럽거나 부도덕하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새로운 발견들은 종종 우리의 정체성,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한 관념을 뒤집어엎는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갈릴레오의 발견이 우주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상에 도전하였듯이, 다윈의 진화론이 인간의 자연적 위상에 대한 관념을 바꾸었듯이, 이제 과학은 현재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직면하면서도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고정돼 바뀔 수 없다는 믿음에 도전하고 있다.

〈다〉

'사람-되기'는 종종 '동물-되지 않기'로 이해되었다. 동물은 생각이 없고, 말을 못하고, 감각은 단순하며, 자연의 법칙과 타고난 본능에 충실하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규정된다. 문명과 발전의 관점에서 '사람-되기'는 그런 동물로부터 뛰쳐나오는 일이었다.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동물에서 인간적인 것을 끄집어내는 일이었다. 이성의 존재, 말로 하는 정치, 그것이 곧 '사람-되기'의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동물은 결여의 존재로 표상된다. 동물은 이성이 없고, 말을 못하며, 법과 윤리와 도덕이 없다. 그래서 그것들은 정치도 없다. '그것들'은 이름 없는 자들을 부르는 말이었고, 사람이 덜된 존재를 부르는 말이었다. 여자들과 아이들과 원주민들과 노예들이 그렇게 불렸다.

이러한 '동물과 인간'이라는 구도는 어떻게 해체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동물이면서도 정치적 주체

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자크 데리다의 '짐승과 주권자' 논의는 '동물과 인간'의 생물학적 구분을 정치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짐승은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에 의해서 창조된다. 조르조 아감벤의 '벌거벗은 생명'도 시민에서 짐승으로 환원된 존재다. '벌거벗음'이란 시민의 보호복인 법이라는 옷이 벗겨진 자를 의미한다. 두뇌와 영혼과 마음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는 한 마리의 짐승이 될 뿐이다. 동시에 이것은 역설적으로 주권이 짐승에 의해 탄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 수 있는 자만이 주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도 시민권도 없는 자,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자, 그들이 곧 짐승이다. 짐승은 인간이 아닌 동물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가 없는 모든 무권리의 존재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도 짐승도 아닌 혼성체들이 출현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게 된다. 현대 세계의 주권자는 누구이며, '시민인 인간'과 '짐승인 인간'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아마도 완전한 시민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존재는 이미 인간보다 동물에 더 가까울 것이다.
'짐승인 인간'에 가해지는 '시민인 인간'의 착취 관계를 해체하고 새롭게 관계를 재구성하려면, 그것은 누구의 해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당연히 가장 최종적인 피착취자, 정치적 최약자들과 무권리자, 가장 동물에 가까운 존재, 동물 그 자신으로부터일 것이다. '동물-되기'는 바로 그 동물로서, 동물과 함께 해방되기 위한 모든 동물적 존재의 실천론이라고 할 수 있다.

〈나〉를 통해 〈가〉의 문제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다〉의 논지에서 비판하시오. (1,000±100자)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과학기술의 인간중심주의와 윤리의 문제에 대해 묻고자 하였다. <가>는 가즈오 이시구로 『나를 보내지 마』에서 인용한 것으로, 생명공학 기술로 탄생한 인간 클론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병든 인간의 치료를 목적으로 탄생한 클론은 보통의 인간처럼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자유를 가지길 원하지만, 인간은 그 클론들이 인간과 같은 자유와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생명공학 옹호론이다. 그에 의하면 생명공학 기술은 인간의 치료라는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자유 등 천부인권적인 의미에서도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다>는 이와 같은 관점을 인간중심주의로서 비판하고 있다. 인간은 천부인권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주권자인 인간에 의해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존재로서 동물이 종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렇기에 인간의 주권은 역설적으로 동물에 의해 탄생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가>의 인간 클론은 과학기술이 인간중심주의라는 관념 속에서 현실 사회의 윤리적 제한을 넘어설 때 창조되는 존재로서, <다>의 논지로 볼 때 그러한 클론은 인간에 종속된 비주체적 인간이며,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인간, 즉 '동물'로서, 역으로 과학기술의 인간중심주의를 본질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존재로서 파악할 수 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중 [선택교육과정]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선택교육과정]의 일반과목</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국어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문학</th><th>관련</th></tr>
<tr><td>성취 기준 1</td><td>(1) 문학의 본질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평가기준
(중) 문학의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을 중심으로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문학의 효용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td><td>제시문 (가)</td></tr>
</table>
2. 도덕과 교과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생활과 윤리</th><th>관련</th></tr>
<tr><td>성취 기준 1</td><td>(2) 생명과 윤리
[12생윤02-02]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여러 윤리적 관점을 비교·분석하고,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동물의 권리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자신의 관점을 윤리 이 론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

평가기준
(중)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여러 윤리적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할 수 있으며,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동물의 권리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말할 수 있고, 자신의 관점을 윤리 이론을 통해 말할 수 있다.</td><td>제시문 (나)
제시문 (다)</td></tr>
</table>
3. 사회과 교과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통합 사회</th><th>관련</th></tr>
<tr><td>성취 기준 1</td><td>(1)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td><td>제시문 (다)</td></tr>
</table></td></tr>
</table>

과목명: 통합 사회	관련
평가기준 (중)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나를 보내지 마	가즈오 이시구로	민음사	2009	117-119	제시문(가)	○
인간의 미래	라메즈 남	동아시아	2007	6-14	제시문(나)	○
‘사람-되기’와 ‘동물-되기’	채효정	창비	2020	18-23	제시문(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 N	2017	56-65	제시문 (나), (다)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가즈오 이시구로, 김남주 옮김,『나를 보내지 마』, 민음사, 2009, 117-119쪽

<가>는 가즈오 이시구로『나를 보내지 마』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 소설은 생명공학 기술로 탄생한 인간의 클론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인용 부분은, 피터와 고든 등 헤일셤 학교의 학생들은 이러한 클론들로서 그들은 병든 인간들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를 기증해야만 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이 클론들도 보통의 인간처럼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자유를 가지길 원하지만, 루시 선생님은 이 클론들은 인간에게 장기를 기증할 목적으로 탄생한 존재이기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지 못하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나>: 라메즈 남,『인간의 미래』, 동아시아, 2007, 6-14쪽

<나>는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논쟁을 설명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 및 복제 기술 등의 생명공학 기술에 대해 반대하는 측은 안정성, 사회적 정의(분배), 윤리성 등을 근거로 이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하지만, 찬성하는 측은 이 기술이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전한 것으로 실질적이며, 이념적인 면에서도 천부인권처럼 인간이 자신의 심신을 결정할 자유라는 권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인간이란 종

이 자신의 심신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과학은 항상 당대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데 과학은 항상 그러한 윤리에 도전해 왔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 채효정, 「'사람-되기'와 '동물-되기'」, 『문학3』 2020/#2, 창비, 18-23쪽
<다>는 인간중심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데리다는 동물이란 자연스럽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주권자인 인간에 의해 종속된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마찬가지 논리로서 아감벤은 인간이 동물로 환원되는 순간을 설명하면서, 인간도 인간이 지닌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면 동물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인간의 주권은 역설적으로 동물에 의해 탄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일방적인 착취 관계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동물은 인간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간중심주의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논제의 구성
문제는, <가>의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나>를 통해 설명하고, 그와 같은 과학기술의 인간중심주의에 대해 <다>의 논지를 찾아 비판하는 이단 구조로 출제하였다. 우선 <가>를 통해 인간 클론이 인간이면서, 생명의 존엄성이나 주체성 등 인간의 권리를 박탈당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점을 기술한 후, 그것이 <나>에서 주장하는 생명공학의 연장선상에서 인간중심주의적인 윤리의 문제와 결부된다는 점을 지적한 후, <다>에서 말하는 인간중심주의 비판의 관점에서 이에 대해 분석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답안의 기본 요소 -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 -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의 내용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 제시문 (가)의 문제적 상황을 포착한다. - 헤일셤 학교의 학생들은 인간의 클론으로서 인간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장기를 기증해야만 하는 운명 - 이 클론들도 인간처럼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자유를 원하지만, 인간은 이 클론들은 인간에게 장기를 기증할 목적으로 탄생한 존재이기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지 못하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 ② 제시문 (나)의 생명공학 옹호론을 파악한다. - 생명공학 옹호론자들은 유전자 조작 및 복제 기술 등의 생명공학 기술은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전한 것으로 실질적이며, - 이념적인 면에서도 천부인권처럼 인간이 자신의 심신을 결정할 자유라는 권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 인간이란 종이 자신의 심신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함	

	③ 제시문 (다)는 이와 같은 관점을 인간중심주의로서 비판하고 있다. - 데리다는 동물이란 자연스럽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주권자인 인간에 의해 종속된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 아감벤은 인간이 동물로 환원되는 순간을 설명하면서, 인간도 인간이 지닌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면 동물이 된다고 주장. 그렇기에 인간의 주권은 역설적으로 동물에 의해 탄생한다는 것. ④ (나)를 활용하여 (가)의 문제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가)의 문제상황은 인간 클론이 인간의 권리를 가지는가 아닌가의 대립 - (나)의 생명공학 옹호론자들의 주장, 그 중에서도 과학은 당대의 윤리에 끊임없이 도전하였다는 지점, 하지만 그 결과가 인간이면서 인간의 권리를 박탈당한 존재를 생산하고 말게 되었다는 역설을 지적. ⑤ (다)를 활용하여, (가)의 문제상황과 (나)의 생명공학 옹호론을 동시에 비판할 수 있다. - (나)의 과학기술은 철저히 인간중심주의의 사고에만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 - 과학이 당대의 윤리의 문제와 싸우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왔다는 미명하에, 인간을 동물로 환원하는 인간의 착취성이 감추어질 때, 인간 클론은 출현할 수 있는 것 - 이렇게 출현한 (가)의 인간 클론은 비주체적 인간이며,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인간, 즉 '동물'로서, 철저히 인간에게 종속된 '짐승인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과 동물의 일방적인 착취 관계는 해소되어 동물은 인간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간중심주의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다)를 활용하여 말할 수 있음. <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고, 단락 구분 및 정서법이 정확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고, 단락 구분 및 정서법이 부정확한 경우	2등급
	1등급과 동일하되, ⑤가 부족한 경우	3등급
	2등급과 동일하되, ⑤가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은 충족하고 있으나, ④, ⑤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는 충족하고 있으나, ③, ④, ⑤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만 기술하고, ④, ⑤가 누락된 경우	7등급
	①, ②, ③ 의 파악이 부정확한 경우	8등급
	300자 이하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7. 예시 답안

(가)는 생명공학 기술로 탄생한 인간의 클론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장기 기증을 목적으로 태어난 클론은 인간처럼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자유를 가지길 원하지만, 인간은 이 클론들은 인간에게 장기를 기증할 목적으로 탄생한 존재이기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지 못하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은 (나)에서 주장되는 생명공학의 옹호론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유전자 조작 및 복제 기술 등의 기술은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전한 것으로 실질적이며, 이념적인 면에서도 이는 개인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인간이란 종이 자신의 심신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과학은 항상 당대의 윤리적 문제에 도전해 왔다고 주장하는데, (가)의 인간 클론은 현실 사회가 금지하는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여 과학기술이 인간의 치료라는 목적 하에 인간 클론을 허용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사회를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다)는 이와 같은 관점을 인간중심주의로서 비판하고 있다. 동물이란 자연스럽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주권자인 인간에 의해 종속된 존재이며, 마찬가지 논리로서 아감벤은 인간이 동물로 환원되는 순간을 설명하면서, 인간도 인간이 지닌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면 동물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인간의 주권은 역설적으로 동물에 의해 탄생한다는 것이다.

(다)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과학기술은 철저히 인간중심주의의 사고에만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할 수 있다. 과학이 당대의 윤리의 문제와 싸우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왔다는 미명하에 인간을 동물로 환원하는 인간의 착취성이 감추어질 때 인간 클론은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출현한 인간 클론은 비주체적 인간이며,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인간, 즉 '동물'로서, 철저히 인간에게 종속된 '짐승인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과 동물의 일방적인 착취 관계는 해소되어 동물은 인간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간중심주의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26자]

2-2. 문항카드 ② <인문계열 1회차 2번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교시) / 문항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세계사
	핵심개념 및 용어	민주주의, 다수의 횡포, 공론조사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6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2> (55점)

〈가〉

"철학자의 성향을 타고 난 사람이 적절한 가르침을 받게 될 경우에는 제대로 자라서 온갖 '훌륭함'(arete)을 갖추게 될 것이 필연적이지만, 만약에 적절하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한다면, 어떤 신이 구원해 주지 않는 한,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상태에 이를 걸세. 다중(多衆) 자신이 '막강한 교사들'이어서, 젊은이거나 노인이거나, 또는 남자거나 여자거나, 자신이 바라는 사람들로 교육하고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언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야 많은 사람이 민회(民會)나 법정, 극장이나 그 밖의 다른 어떤 집회에 떠들썩거리며 모여 앉아서는, 발언과 행동 가운데서 어떤 것은 비난하고 어떤 것은 칭찬할 때이겠는데, 어느 경우든 그들은 극단적으로 나가며, 고함을 지르며 박수를 쳐대네. 게다가 주위 암벽이 그걸 울리게 하여 비난과 칭찬의 소음을 두 배로 증폭시키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의 심정은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교육이 그들을 위해서 버텨주어 그와 같은 비난이나 칭찬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겠는가? 또한 같은 것을 두고서도 아름다운 것이라거나 추한 것이라 말하는 일을 어떤 교육이 막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지 못할 게 다분히 필연적입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교사를 자처하는 다중은 말로써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동으로 강제적인 제재를 가하네. 이들은 설득되지 않는 사람의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것을 자네는 모르고 있는가?"

"분명히 그런 심한 짓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소피스트가 또는 어떤 개인이 말로써 이들과 맞서거나 제압할 것이라고 자네는 생각하는가?"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는커녕, 실은 그런 시도조차도 어리석은 짓이 될 걸세. (·····)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소피스트들 가운데 누구도, 다중이 모였을 때 갖게 되는 교조적인 믿음(dogma)과 다른 것을 가르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도리어 지혜(sophia)라 일컫는다는 데 대해서 말일세. 이 신념들과 욕망들 가운데 어느 것이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거나 추한 것인지, 또는 좋은 것이거나 나쁜 것인지, 그리고 또한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전혀 모르면서도, 이 모든 걸 다중의 의견에 따라 이름 짓는데, 이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좋은 것이라고 일컫는 반면에, 성가셔하는 것들은 나쁜 것이라고 일컫네. 그러니 이상한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현대 문명이 전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대의(代議)민주주의 정치도 집단적 평범성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공동체 내의 교육 수준이 낮은 계급의 수중에 주요 권력을 두게 하려는 개혁 시도가 더욱 빈번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전체 인구의 다수를 점하는 민중에게 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뚜렷해졌다. 사람들은 자기 계층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기 마련인데, 그런 까닭에 지역 선거구의 다수 득표자들로 구성되는 의회의 다수는 민중 출신으로 채워질 것이다. '모두'가 아닌, '다수'만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정치에서 교육받은 소수는 대의기구에 진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펼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 그런데 의회에서 우수한 자가 견해를 발언하는 것과 발언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고대 민주주의에서 유능한 인물은 그 재능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는 발언할 연단이 개방되어 있었다. 유능한 인물이 공동체를 향해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데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대의제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옹호자들조차 고대 그리스의 데모스테네스같이 유능한 인물이 평생토록 의회에 진출하지 못해서 끝내 나라를 구할 연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만약 단 몇 명이라도 이 나라의 최고 지성이 대의기구 내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비록 나머지 의원들이 평범한 지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두 명의 최고 지성은 의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뚜렷이 드러내며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는 대중의 여론과 감정이 최고 지성들에게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제 민주정체는 권력을 영구화하려는 다수의 속성에 맞서 소수가 견해를 펼칠 수 있는 사회적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소수의 견해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좋은 방법은 지역별 다수 득표자만으로 구성되는 단순 대의제에 일정 숫자의 교육받은 소수가 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다. 지성과 능력을 갖춘 도덕적 세력으로서 교육받은 소수는 의결 과정에서 그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의회가 다수 여론의 압력을 이겨내고 대신 이성과 정의 안에 머물게 하여 민주적 의사 결정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정체의 민중은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적이고 인격적인 지도자를 구할 수 있고, 현대 민주주의는 페리클레스같은 우수한 지성으로 구성된 집단에게서 상시적인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다〉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는 《민주주의와 공론조사》(1991)에서 피시킨이 처음 제안했는데, 갈등 사안을 두고 대립하는 찬반 양측의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熟議) 과정을 갖게 한 다음에 양측의 의견 변화를 측정하는 조사 기법이다.
피시킨의 공론조사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핵심 요건인 정치적 평등과 숙의를 모두 충족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대표성과 객관성을 갖게끔 구성된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은 전문가 설명, 조별 토론 등의 숙의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데 비해, 공론조사는 숙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심층적인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견해가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민주적인 소통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론조사는 대의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을

보완하는 '예외적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피시킨이 제안한 공론조사는 크게 네 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는 주제에 대한 1차 여론조사이고, 두 번째 단계는 1차 여론조사 응답자 가운데에서 성, 연령, 지역별로 대표성 있는 토론 참가자(시민참여단)를 선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시민참여단을 한 자리에 모아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강연과 상호 토론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도 있는 학습과 토론을 위해 1박 2일 이상의 합숙이 권장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와 동일한 질문으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2차 조사 결과는 정보 습득과 토론이라는 숙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결과이다. 여기서 도출된 2차 여론조사 결과가 1차 여론조사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공론조사의 핵심이다.

2.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다〉의 '공론조사'가 〈나〉에서 제기된 문제와 그 대안의 한계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한지 평가하시오. (1,000자±100자)

3. 출제 의도

- <문제 2>는 수험생 스스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민주주의를 원리 수준에서 분석하여 내부적 위협 요소를 찾고, 이를 민주주의 발전 역사에서 극복하기 시도했던 노력들을 점검한 후, 가장 최근에 각광 받고 있는 대안의 가치와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출제 의도를 두고 있다.
- <문제 2>는 수험생의 다음과 같은 능력을 측정하려 한다. (1) 각 시대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정치학의 고전에 대한 독해력, (2) 제시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능력, (3)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고 평가하는 능력.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도덕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윤리와 사상</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3) 서양윤리사상
서양의 다양한 윤리사상에 대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비교·대조하고 탐구함으로써 그 사상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서양윤리사상이 현대 한국인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성찰한다.(57쪽)
[12윤사03-01]
서양윤리사상의 연원으로서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즘을 살펴보고, 소피스트의 윤리사상과 소크라테스의</td><td>제시문 (가)

문제 2</td></tr>
</table></td></tr>
</table>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윤리사상을 비교하여 윤리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보편주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57쪽)	
성취 기준 2	(4) 사회사상 국가, 시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평화 등의 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사회사상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동·서양의 다양한 이상사회론을 조사·탐구함으로써 윤리적 삶을 위한 바람직한 이념적 시각은 어떠한 것인지 성찰한다.(59쪽) [12윤사04-04]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탐구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등 현대 민주주의 사상들이 제시하는 가치 규범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세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59쪽)	제시문 (나) (다) 문제 2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 기준 1	(3) 정치과정과 참여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선거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탐색한다. 또한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이해하고,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을 탐색한다.(235쪽) [12정법03-02] 대의제에서 선거의 중요성과 선거 제도의 유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다.(235쪽)	제시문(가) (나) (다) 문제 2

과목명: 세계사		관련
성취 기준 1	(4)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화, 크리스트교, 게르만족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유럽 세계의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유럽 봉건 사회의 성립과 변화 모습을 통해 이 시기의 역동적인 역사상을 파악한다.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의 흥기를 탐구하고,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해석한다.(212쪽) [12세사04-01] - 그리스·로마 문명의 특징을 이해하고, 고대 지중해 세계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탐구한다.(213쪽) -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 그리스·로마의 정치 제도와 오늘날 민주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213쪽)	제시문 (가) (나) (다) 문제 2

나) 자료 출처 -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가	플라톤	서광	2005	401-405	제시문(가)	×
대의정부론(현대민주주의론1)	J. S. 밀	창작과비평사	1992	177-183	제시문(나)	○
공론화위원회와 민주주의(법과정책연구)	이상명	법과정책연구 19집1호	2019	4-5, 16-17	제시문(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윤리와사상	황인표 외	교학사	2019	99-102	제시문(가)	×
고등학교 윤리와사상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19	187-194	제시문(가),(나),(다)	×
고등학교 정치와법	이경호 외	미래엔	2019	16-18	제시문(나),(다)	×
고등학교 정치와법	서범석 외	지학사	2019	15-17	제시문(나),(다)	×
고등학교 세계사	김덕수 외	천재교육	2018	116-117	제시문(가)	×
고등학교 세계사	최준채 외	미래엔	2018	147	제시문(나)	×

5. 문항 해설

- 이 문항은 고대 직접민주주의에서 근대 대의제민주주의 각각의 한계를 논하고 있는 두 편의 글(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그 논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적으로 서술한 후, <나>의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문 <다>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문항임.

- <가>의 저자(플라톤)는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빌려서 교육에서 환경의 영향을 논하면서, 철학자의 성향을 타고난 사람일지라도 다중(다수)의 의지와 선호에 길들여질 것이라는 보기를 제시한다. 소피스트들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중(다수)의 도그마를 정당화하는 지식을 생산하고 교육할 뿐이므로, 형식적으로 소피스트가 교사의 역할을 수행할지라도 실제로는 다중(다수)이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다중(다수)의 위력은 교육뿐만 아니라 민회와 법정 같은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에서 다수의 견해만을 진실로 규정하고 소수의 견해를 억압하는 데도 발휘된다.

- <나>의 저자(J. S. 밀)는 선거권 확대에 따라 대의기구가 특정 계급의 대표로만 구성되는 현대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대안으로 지성과 능력을 갖춘 소수의 인물을 의회에 진출시키는 혼합 대의제를 제시한다. 연단이 개방되어 유능한 인물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었던 고대 직접민주주의와 달리, 현대 대의제는 민중의 선호에 의해 민중 계급의 대표로만 구성되어 소수의 우수한 견해를 펼칠 수조차 없다는 한계가 있다. 대의제 구성 방식을 수정하여 지성적인 인물이 비례대표로 소수라도 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이들이 심의와 토론을 통해서 평범한 수준의 의원들이 다수 여론의 압력을 이겨내고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 <다>는 공론조사의 원리와 방법, 그리고 한계를 다룬 설명문이다. 일회적으로 다수의 견해를 파악하는 여론조사와 달리, 공론조사는 체계적으로 표집된 시민참여단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한 바탕으로 공론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주목하는 조사기법이다. 공론조사는 전문가와 정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평등' 조건을, 일반 시민도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갖는다는 점에서 '숙의' 조건을 충족하여,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40%) • 두 제시문의 내용에 관한 독해력과 각각의 역사와 원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함. • 두 제시문을 읽고 둘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능력이 탁월함. (단순 내용 나열이 아니라, 저자 생각의 전제를 찾아내서 분석해야 함) • 예시답안의 전반부 참조. • Key Word : 제시문 <가> 다중(다수)의 위력, 전문가(교사)와 다중(다수)의 관계, 민회 제시문 <나> 대의제와 선거권 확대, 다수인 민중계급의 의석 독점, 민주주의에서 다수 여론에 의한 소수 견해의 억압, 교육받은 소수, 단순 대표제와 비례대표제. • 답안 구성 요소 **① <가>와 <나>의 공통점 서술** - <가>와 <나>는 고대 직접민주주의와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모두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 다수의 견해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것과 다른 (소수의) 견해를 펼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는 점과 민중이 우수한 견해를 만들거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점에서 일치한다. **② <가>와 <나>의 차이점 서술** - <가>는 광장의 연설을 통해 견해가 표현되고 결집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이 다수의 위력을 증폭시켜 지식과 믿음의 영역까지 지배하여 (진리 탐구 가능성이 봉쇄되어) 다수의 견해에 맞설 방법이 없고 그런 까닭에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야 할 지식인조차 다중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고 보는 반면에, <나>는 선거권 확대에 따라 평범한 수준의 다수 견해가 의회를 지배할지라도 소수의 지적인 인물이 의회에 진출해서 숙의 과정에서 영향을 발휘하여 다수가 여론의 압력을 이겨내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견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나>의 문제 찾기】(20%) • <나>에 제기된 문제점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기초해서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함. • 대의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비례대표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이 기존 민주주의의 원리와 목적을 어떤 점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지를 추론하는 능력이 탁월함. • 예시답안의 중반부 참조 • Key Word : 단순 대의제의 한계, 대안으로서 비례대표제, 대의제의 실패. • 답안 구성 요소 **③ 선거권 확대 이후 단순 대의제의 문제점 제시** - 대의제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대표가 모여서 논의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민주주의 제도이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하나는 사실상 하나의 계급(민중)의 견해만 대표된다는 점에서 선거제의 문제점이고, 다른 하나는 선출된 대표들이 다른 견해에 대한 고려나 더 우수한 대안의 존재에 관한 숙의 없이 단지 다수 여론을 따르게 되는 의사결정의 문제점이다. **④ 교육받은 소수의 비례대표 진출 이후의 문제점의 원리적 추론** - <나>는 교육받은 소수를 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끌어내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표가 자신을 선출한 계급이나 집단의 이익	1등급

	과 견해를 대표하지 못하고 엘리트의 견해를 과잉 반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엘리트의 한 견해가 숙의 과정을 주도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극복 방안으로서 <다>의 평가】(40%) • <다>의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그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핵심 평가기준을 찾아냈음. • <나>의 문제점을 <다>의 원리와 방식에 적용하여 극복 가능성을 평가한 내용이 탁월함. • 예시답안의 후반부 참조. • Key Word : 공론조사, 숙의민주주의, 정치적 평등, 숙의에 의한 태도변화. • 답안 구성 요소 **⑤ 해결방안 1 - 정치적 평등 조건 충족** - 공론조사의 시민참여단이 성,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대표하게 하고 또 그들이 모두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평등' 조건을 충족시킨다. **⑥ 해결방안 2 - 숙의를 통한 견해 변화와 이를 통해 다수 여론 영향력 극복** - 공론조사에서 시민은 갈등 사안의 찬반 양측 전문가의 설명 등을 통해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소집단 토론 등을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여론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다. **⑦ 해결방안 3 - 대의제의 실패 및 전문가주의와 관료제의 확산 추세를 극복** - 관료제와 전문가주의에 의해 시민과 민중의 견해가 제대로 표출되거나 대의되지 못하는 현재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생생한 견해를 결집하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⑧ 한계 - 공론조사는 상시가 아닌 갈등 사안에 대해서만 임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과 선출된 대표가 아닌 시민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대의제 실패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활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 1등급 <채점 기준> - 위 세부 답안 구성 요소(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을 모두 충족한 경우이면서, 논술의 구조적 완결성과 표현 능력이 우수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을 모두 충족했는데, 논술의 완결성이 조금 부족하거나 표현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가운데 6개 이상을 충족하고, 논술의 구조적 완결성과 표현 능력이 우수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가운데 6개 이상을 충족했으나, 논술의 구조적 완결성과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가운데 4~5개를 충족하고, 논술의 구조적 완결성과 표현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가운데 4~5개를 충족하고, 논술의 구조적 완결성과 표현 능력이 확연히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가운데 2~3개를 충족하고, 논술을 형식적으로 완결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가운데 2~3개를 충족했으나, 논술을 형식적으로 완결하지 못한 경우	8등급
	답안의 완성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분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7. 예시 답안

<가>와 <나>는 민주주의 정치에서 다수 견해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다른 견해 또는 소수의 견해가 억압되는 것을 우려하고, 민중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점에서 일치한다. 하지만, 그 진단과 대안 제시에서 차이가 있다. <가>는 광장의 연설을 통해 여론이 결집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이 다수의 위력을 증폭시켜 지식과 믿음의 영역까지 지배하는 까닭에 지식인조차 다중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고 보는 반면에, <나>는 민중의 다수 여론을 통해 의회를 지배할지라도 지식인이 의회에 진출해서 심의 과정에서 영향을 발휘하여 다수의 생각을 바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의 대의제에는 하나의 계급(민중)의 견해만 대표되는 선거제도상의 문제점과 선출된 대표들이 다른 견해나 우수한 대안에 관한 숙의 없이 단지 다수 여론을 따르게 되는 의사결정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다. 그 대안으로 <나>는 교육받은 소수를 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시켜 합리적 의사결정을 끌어내는 선거제 변화를 제안했는데, 이 경우에도 대표가 자신을 선출한 계급이나 집단의 이익과 견해를 대표하지 못하고 심의를 주도하는 엘리트의 견해를 과잉 반영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의 공론조사는 세 가지 점에서 <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첫째, 시민참여단이 성,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집되어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대표하게 하고 또 그들이 모두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평등' 조건을 충족시킨다. 둘째, 갈등 사안의 찬반 양측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받고 소집단 토론을 통한 숙의 과정을 통해 다수의 횡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셋째, 시민의 견해를 정부에 전달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공론조사는 상시가 아닌 갈등 사안에 대해서만 임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과 선출된 대표가 아닌 시민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대의제 실패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활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1,008자)

2-3. 문항카드 ③ <인문계열 2회차 1번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2교시) / 문항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세계사, 사회·문화,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야만적 타자, 식민주의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60분	

2. 문항 및 자료

〈가〉

타자 담론은 식민 주체의 구성을 바탕으로 식민 지배를 합법화하는 방편이 된다는 의미에서 제국에 대한 인식적 지도 그리기 작업의 필수 요소가 된다. 그것은 두 문화 사이의 공간적 차이를 설정하는 장소의 문제와도 관계를 맺는다. 타자 담론은 재현 및 장소의 문제와 제국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인 것이다. 타자 담론은 무엇보다 문화 간의 차이를 관계적 현상이 아니라 절대적 현상으로 파악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타자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제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최적의 수단이 된다. 문화와 문화의 관계에서 한 문화의 정체성은 바로 자아를 타문화로부터 구분하는 방식에 의해 가장 분명하게 확보되기 때문이다.

사실 서구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정당성이 서구가 지닌 경제력과 군사력의 우위가 아니라, 과학·문화·정치 등의 제 분야에서 서구가 구축한 지식이 보편적인 것이라는 자기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은 타자 담론을 보증하는 확실한 지표이다. 결국 세계를 서구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식민주의는 식민 지배자들에게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로 인식된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의 원주민은 야만과 비이성의 특징을 가진 식민주의 담론의 대상이 된다. 이질적인 공간의 원주민은 야만인이며 동물과 같은 존재일 뿐, 서구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구 세계 바깥의 타문화를 야만적 타자로 규정하는 식민주의적 사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서구 세계에 존재했던 뿌리 깊은 전통이다. 야만인을 뜻하는 영어 'barbarian'의 어원은 그리스어 'barbaros'에 있는데, 그리스인들은 이 말을 자신들보다 열등한 종족을 자신들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했다. 원래 '낯선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란 뜻의 이 용어는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타자를 비이성적인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규정하기 위해 쓰였다. 이를 시작으로 '야만인'은 이후 서구가 만들어낸 타자 담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용어가 되었다. 이와 같이 타자 담론은 타문화의 폄하를 통해 폭력과 침략, 정복을 정당화하는 식민주의 이념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나〉

나는 내가 발견한 나라들을 정복하는 일이 페르디난도 코르테스*가 벌거벗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정복하는 것처럼 쉬운 일인지 의심이 든다. (·····) 물론 내가 발견한 나라들을 국왕 폐하의 영토로 개척하자는 주장에 대해 내가 소극적인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다소 망설임을 가진 사람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해적 일당이 폭풍우 탓에 미지의 세계로 밀려갔다고 치자. 마침내 한 소년이 중간 돛대에 올라가 육지를 발견한다. 그들은 강탈과 약탈을 목적으로 그곳에 상륙한

뒤, 순진무구한 원주민들을 발견하고 그들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는다. 그들은 그 나라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자신들의 국왕을 대신하여 그 나라를 공식적으로 접수한다. 그리고 기념으로 그곳에 썩은 판자나 돌을 세운다. 그들은 또 이삼십 명의 원주민들을 살육하고 그들 중 한 쌍을 강제로 모국으로 데리고 돌아와 사면을 받는다. 그럼 이때부터 하늘이 부여한 권리에 따라 그들 나라의 새 영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즉시 함대가 파견되고, 원주민들은 추방되거나 학살된다. 그곳의 원주민 지도자들은 황금을 내놓으라고 고문을 당한다. 비인간적이며 탐욕적인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자유로운 허가장이 제공된다. 그 나라의 대지는 원주민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든다. 이런 경건한 원정에 참여한 살육자 집단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야만인들을 개종시키고 교화하기 위해 보내어지는 오늘날의 식민지 건설자인 것이다.
*** 스페인의 하급 귀족 출신으로,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을 정복한 인물.**

〈다〉
길동은 벼 일천 석을 얻어 삼천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조선을 하직해 큰 바다에 배를 띄워 남경 땅 제도라는 섬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수천 호의 집을 짓고 농사에 힘쓰며, 재주를 배워 무기 창고를 짓고 군법을 연습했다. 이곳은 본래 깊고도 아늑한 곳이라 누구도 알 사람이 없고 풍족했다. 하루는 길동이 화살촉에 바를 약을 구하러 배를 띄워 망당산으로 향했다. (·····) 길동이 망당산을 향하여 약을 캐며 깊이 들어가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길동이 어찌할까 주저하고 있는데, 마침 사람 소리가 들리며 등불 빛이 밝게 비치는 것이 보였다. 마음속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곳을 찾아가니, 사람이 아니라 괴물 여럿이 무리를 지어 앉아 서로 지껄이고 있었다. 가만히 엿보니, 그 모습은 비록 사람이나 짐승의 무리가 분명했다. 원래 이것은 '울동'이라는 짐승인데, 여러 해 동안 산속에 있어 변화가 무궁했다. 길동이 생각하기를 '내 두루 다녀보았으나 이 같은 것은 처음 보는 것이라. 이제 저것을 잡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리라.' 하고 몸을 감추어 활을 쏘니, 그중에 우두머리 놈이 맞았다. (·····) "우리는 이곳에 산 지 오래되었는데, 우리 왕이 부인을 새로 정하고 지난밤 잔치를 하다가 하늘에서 내린 재앙을 맞아서 위중하다. 그대가 명의라고 하니 선약으로 왕의 병을 고치면 큰 상을 받으리라." 길동이 듣고 생각하였다. '이놈이 어젯밤에 내 화살에 다친 놈이로구나.' 길동이 허락하였다. (·····) 길동이 평소 온갖 환약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때 그중 독한 약을 찾아내어 작은 요괴에게 주며 말했다. "이 약을 급히 갈아 써라." 모든 요괴가 크게 기뻐하며 즉시 더운물에 갈아 먹이니, 잠시 후에 대왕이 배를 두드리고 눈을 실룩이며 소리를 지르다가 두어 번 뛰어오르더니 죽었다. 작은 요괴들이 이 광경을 보고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모든 요괴가 아무리 천 년을 묵어 조화를 부린다고는 하나 어찌 길동의 신기한 술법을 당하리오. 한바탕 싸움으로 모든 요괴를 다 죽이고, 도로 요괴가 사는 곳으로 들어가 남은 요괴까지 모조리 죽였다. (·····) 세월이 물같이 흘러 모든 영웅을 모아 무예를 연습하며 농업에 힘쓰니, 불과 몇 년 사이에 군대와 곡식이 모두 풍족해졌는데, 이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때 율도국이란 나라가 있었으니, 그 넓이는 수천 리요, 사방이 막혀 있어 과연 견고하고 풍요로운 나라였다. 길동이 매양 이곳에 뜻을 두고 왕위를 빼앗고자 했는데, 이제 기운이 활발하여 세상에 두려워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하루는 길동이 사람들을 불러 의논했다. "내 처음 사방으로 다닐 적에 율도국에 뜻을 두고 이곳에 머물렀는데, 이제 마음이 크게 움직이니 운수가 열렸음을 알겠노라. 그대들이 나를 위해 군대를 징발하면 율도국 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것이니, 어찌 큰일을 도모하지 못하겠는가?" 길동이 스스로 선봉이 되어 정예군사 오만 명을 거느리고 날을 정해 출병하니, 이때는 갑자년 음력 9월이었다. (·····) 격서를 써 율도 왕에게 전하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의병장 홍길동이 글월을 율도 왕에게 전하노라. 대저 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요, 천하 사람의 임금이라. 이러므로 탕왕이 걸을 정벌하시고 무왕이 주를 정벌하신 것은 하늘의 이치로 자연히 된 일이라. 내 일찍이 군사를 일으켜 율도국을 치매, 먼저 철봉성에 항복받고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니 지나는 곳마다 투항하지 않은 자가 없었도다. 이제 왕이 싸우고자 하면 싸우고, 그렇지 아니하면 일찍 항복하여 살기를 도모하라." 율도 왕이 끝까지 다 읽은 후 놀라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철봉성을 믿고 지내왔거늘, 이제

철봉성을 잃었으니 어찌 적의 형세를 당하리오."하고는 자결하니, 세자와 왕비가 따라 모두 자결했다. 길동이 성안으로 들어가 백성을 위로하고 소와 양을 잡아 여러 장수와 군졸에게 베풀었다. 길동이 왕위에 오르니, 때는 을축년 정월 28일이었다.

1. 〈가〉의 논지를 활용하여 〈나〉에서 '나'가 '식민지 건설자'에 대해 보인 태도를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에 그려진 '길동'의 행위를 평가하시오. (1,000±100자)

3. 출제 의도

2회차 계열문항 1 논술 주제는 '식민주의'이다. 식민주의란 식민 주체의 구성을 통해 제국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념이다. 이 문제는 식민주의 이념이 타자 담론에 근거하여 식민 주체를 '야만적 타자'로 구성하는 방식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국의 식민 지배에 대해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하는지의 물음을 던지고 있다. 나아가 이 물음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바탕으로 식민주의 이념이 이른바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문학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고전'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도덕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생활과 윤리</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 문화와 윤리
[12생윤05-03]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다문화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오늘날 종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평가기준
중: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다문화 이론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고, 오늘날 종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td><td>문제 제시문 <나></td></tr>
</table></td></tr>
</table>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세계사		관련
성취 기준 1	(4)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12세사04-03] 신항로 개척이 가져온 유럽의 흥기와 절대 왕정의 등장에 대해 탐구하여 유럽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파악한다.	제시문 <가>, <나>
성취 기준 2	(5) 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 대전 [12세사05-01]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이에 대항한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에 대해 조사한다.	<나>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3) [12사문03-01]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평가기준 상 ;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사례를 들어 비교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가> 문제

3.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12문학03-02]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한다. -평가기준 (상) 한국 문학의 대표작들에 구현된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12문학03-05]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해서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 -평가기준 (중)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하여 읽고, 한국 문학이 지닌 보편성과 한국 문학만의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나>, <다>
성취 기준 2	(4) 문학에 관한 태도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평가기준 중 : 작가의 가치관, 작품 속 인물의 성격과 태도 등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과 작품에 대한 타인과 소통하는 태도를 보인다.	제시문 <나>, <다>

나) 자료 출처

-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탈식민주의	고부응 외	문학과지성사	2003	276~279	제시문 <가>	○
걸리버 여행기	조너선 스위프트 (유경희 역)	미르북 컴퍼니	2020	518~519	제시문 <나>	×
홍길동전(홍길동전·전우치전)	김현양 편(허균)	문학동네	2010	48~60	제시문<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8	170-174	제시문 <나>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지학사	2018	168-175	제시문 <ㄴ>	×
고등학교 세계사	김형종 외	금성출판사	2018	106-139	제시문 <나>	×
고등학교 세계사	김덕수 외	천재교육	2018	66-169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18	94-105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사회·문화	서범석 외	지학사	2018	92-102	제시문 <가>	×
고등학교 문학	이숭원 외	좋은책신사고	2019	282-297	제시문 <다>	×
고등학교 문학	방민호 외	미래엔	2019	204-226	제시문 <가>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고부응 외,『탈식민주의』, 문학과지성사, 2003, 276-279쪽.

<가>는 타자 담론이 식민주체의 구성을 통해 제국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서구 식민주의 이념의 수단이 되었음을 논하고 있다. 제시문에 따르면, 타자 담론은 공간적 차이에 의해 구분되는 두 문화 사이의 차이를 절대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타문화로부터 자아를 구분하는 방식을 통해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러한 타자 담론에 근거하여 서구의 식민주의는 제국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제국 바깥에 존재하는 이질적 공간의 원주민을 열등한 종족, 동물과 같은 비이성적 '야만인'으로 규정한다. 이와 같이 식민주의는 제국 외부의 타문화를 야만적 타자로 폄하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제국의 폭력과 침략 및 정복에 합법성을 부여했다.

제시문 <나> : 조너선 스위프트, 유경희 역,『걸리버 여행기』, 미르북컴퍼니, 2020, 518~518.

<나>는 조너선 스위프트의『걸리버 여행기』에서 인용한 글로, 작가 '나'가 멕스코의 아즈텍 문명을 원정 정복한 스페인 출신 코르테스의 행위를 풍자적 예화(例話)의 서술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벌거벗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정복한 코르테스로 대변되는 '식민지 건설자'들을 '경건한 원정에 참여한 살육자 집단'이라고 비꼬어 표현하고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나'는 그들의 신세계 정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가 제시한 예화에 따르면, 황금의 강탈과 약탈을 목적으로 신세계를 정복한 '식민지 건설자'들은 그곳의 원주민을 '우상을 숭배하는 야만인'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그곳에서 저지른 온갖 비인간적이고 탐욕적인 행위를 '하늘이 부여한 권리'에 따라 야만인의 '개종'과 '교화'을 위해 수행한 것이라는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서구의 제국 외부의 신세계 문화를 야만적 타자로 폄하하여 제국의 폭력과 침략 및 정복을 정당화하는 식민주의 이념을 비판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시문 <다> : 허균,『홍길동전』(완판본)

<다>는『홍길동전』에서 인용한 글로, 길동이 조선을 하직하고 율도국의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길동이 보인 행위는 크게 두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첫째는 율도국 정벌의 군사적 거점이 되고 있는 '제도'라는 섬에서 그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울동'이라 일컬어지는 존재들을 '모조리' 죽인다는 점이다. 제시문에 암시되어 있듯이, 울동은 '사람'의 형상을 한 존재로 언어를 사용하며 등불을 이용할 줄 알고 결혼 풍속을 지닌 제도 섬 산속에 거주하는 원주민들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길동을 아무런 경계하지 않는 사실과 대조적으로 길동이 이들을 서슴없이 죽이는 잔혹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짐승', '요괴', 즉 야만적인 타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길동의 율도국 정벌이 명분이 없는 행위라는 사실이다. 사실 길동의 율도국 정벌은 그곳이 지닌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길동은 율도국의 정벌을 '하늘의 이치'에 따라 '자연히 된' 일이라며 명분 없는 정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요컨대 길동에게 조선 바깥에 존재하는 '제도'와 율도국은 야만적 타자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그 장소의 원주민들은 제거해도 무방한 정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논제의 구성

문제는 '식민주의'에 대해 논하고 있는 <가>의 논지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나>에서 '나'가 '식민지 건설자'에 대해 보인 태도를 분석하고, 이 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다>에 그려진 '길동'의 행위를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제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 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가>의 핵심 논지 파악
둘째, <가>의 논지를 활용하여 <나>에서 '나'가 '식민지 건설자'에 대해 보이는 태도 분석,
셋째, 둘째 단계에서 이루어진 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다>에 그려진 '길동'의 행위 평가.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 답안의 기본 요소 첫째,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복시켰는가. 둘째,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셋째,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의 내용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가>의 핵심 논지 파악** **① 타자의 담론에 근거한 식민주의 이념의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히 정리하고 있는가?** -타자 담론과 식민주의 : 식민주의는 타자 담론에 근거하여 제국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제국 바깥에 존재하는 이질적 공간의 원주민을 열등한 종족, 동물과 같은 비이성적 '야만인'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식민주의는 제국 외부의 타문화를 야만적 타자로 폄하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제국의 폭력과 침략 및 정복에 합법성을 부여했다. *** <가> 논지를 활용하여 <나>에서 '나'가 '식민지 건설자'에 대해 보이는 태도 분석,** **② '식민지 건설자'란 곧 '경건한 원정에 참여한 살육 집단'이라는 표현에 함축된 '나'의 태도를 적절히 추론하였는가.** -'나'의 '식민지 건설자'에 대한 비판적 태도 : '나''벌거벗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정복한 코르테스로 대변되는 '식민지 건설자'들을 '경건한 원정에 참여한 살육자 집단'이라고 비꼬어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는 '식민지 건설자'들의 신세계 정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나'의 태도를 <가>의 논지와 연결지어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가.** -황금의 강탈과 약탈을 목적으로 신세계를 정복한 '식민지 건설자'들은 그곳의 원주민을 '우상을 숭배하는 야만인'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그곳에서 저지른 온갖 비인간적이고 탐욕적인 행위를 '하늘이 부여한 권리'에 따라 야만인의 '개종'과 '교화'을 위해 수행한 것이라는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서구의 제국 외부의 신세계 문화를 야만적 타자로 폄하하여 제국의 폭력과 침략 및 정복을 정당화하는 식민주의 이념을 비판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둘째 단계에서 이루어진 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다>에 그려진 '길동'의 행위 평가** **④ 식민주의 이념 및 효과와 관련지어 율도국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길동'이 보이는 길동의 행위와 관련 두 가지 평가 지점을 적절히 포착하고 있는가.** - 두 가지 평가 지점 첫째, 율도국 정벌의 군사적 거점이 되고 있는 '제도'라는 섬에서 그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울동'이라 일컬어지는 존재들을 '모조리' 죽인다는 점이다. 둘째는 길동의 율도국 정벌이 명분이 없는 행위라는 사실이다. **⑤ 식민주의 이념 및 효과와 관련지어 '길동'의 보인 두 가지 행위의 특징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적절히 평가하고 있는가.** -첫번째 행위에 대한 평가: 울동은 '사람'의 형상을 한 존재로 언어를 사용하며 등불을 이용할 줄 알고 결혼 풍속을 지닌 제도 섬 산속에 거주하는 원주민들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길동을	

	아무런 경계하지 않는 사실과 대조적으로 길동이 이들을 서슴없이 죽이는 잔혹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짐승', '요괴', 즉 야만적인 타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행위에 대한 평가 : 길동의 율도국 정벌은 그곳이 지닌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길동은 율도국의 정벌을 '하늘의 이치'에 따라 '자연히 된' 일이라며 명분 없는 정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요컨대 길동에게 조선 바깥에 존재하는 '제도'와 율도국은 야만적 타자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그 장소의 원주민들은 제거해도 무방한 정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정확히 기술하고 단락 구분 및 정서법이 정확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정확히 기술하고 있으나, 단락 구분 및 정서법이 부정확한 경우	2등급
	1등과 동일하되, ②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된 경우.	3등급
	2등과 동일하되, ②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된 경우.	4등급
	1등과 동일하되, ②, ③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된 경우.	5등급
	2등과 동일하되, ②, ③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중 세 개 이상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네 개 이상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된 경우.	8등급
	300자 이하	9등급

7. 예시 답안

<가>는 타자 담론이 식민주체의 구성을 통해 제국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식민주의 이념의 수단임을 밝히고 있다. <가>에 따르면, 타자 담론은 공간적 차이에 기인하는 두 문화 간의 차이를 절대적 것으로 인식하고 타문화로부터 자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정체성을 구성한다. 이에 따라 식민주의는 제국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이질적 공간의 원주민을 비이성적 '야만인'으로 규정한다. 이처럼 식민주의는 제국 외부의 타문화를 야만적 타자로 폄하함으로써 제국의 폭력적 정복에 합법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나>에서 '나'는 '식민지 건설자'들을 '경건한 원정에 참여한 살육자 집단'이라는 풍자적 표현을 통해 그들의 신세계 정복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다. '나'가 제시한 예화에 따르면, '황금'의 강탈을 목적으로 신세계를 정복한 그들은 원주민을 '야만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비인간적, 탐욕적 행위를 '야만인'의 교화를 위해 '하늘이 부여한 권리'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정당화한다. 이 점에서 '나'는 타문화를 야만적 타자로 폄하하여 제국의 정복을 합법화하는 식민주의를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할 때, <다>에 그려진 길동의 행위는 '식민지 건설자'의 그것과 두 가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제도'에서 사람의 형상을 한 '울동'을 죄의식 없이 '모조리' 죽이는 행위는 '울동'을 '짐승', '요괴' 즉 '야만적 타자'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길동의 율도국의 정복이 명분 없는 행위라는 점이다. 길동의 율도국 정복은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행위를 '하늘의 이치'에 따라 '자연히 된' 일로 정당화한다. 이는 신세계 정복이 '하늘이 부여한 권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 '식민지 건설자'의 신념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요컨대 길동에게 조선 외부의 '제도'와 율도국은 야만적 타자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그 장소의 원주민들은 제거해도 무방한 정복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길동의 행위는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4. 문항카드 ④ <인문계열 2회차 2번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2교시) / 문항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정치와 법, 경제,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세계화, 세계무역기구, 주권, 인권, 특허권, 강제실시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60분	

2. 문항 및 자료

〈가〉

세계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두 현상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 하나는 '세계화되는 지역주의'(globalized localism)고, 다른 하나는 '지역화되는 세계주의'(localized globalism)다. 전자는 특정한 지역에서 생겨난 현상이 세계화되는 경우다. 예를 들면, 영어의 만국공용어화, 미국의 패스트푸드 또는 팝뮤직의 세계 정복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이 국제 표준으로 통용되는 현상 등이 있다. 법의 영역에서 세계화는 서구의 상거래 방식, 과학 기술, 법적 기술 등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지역화되는 세계주의는 특정한 지역 국가들의 조건과 구조, 사람들의 행위가 초국가적 영향에 대응하여 해체되고 재구조화되는 변화 현상을 말한다. 가령 외국인의 관광이 남미 지역 국가들의 토착 수공업에 영향을 미쳐 수공업의 방향과 구조가 바뀌는 현상, 초국가적 거래 현실에 발맞추어 한국의 상업관련 법이 변화하는 현상, 이른바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농업 분야에서 추진되는 무역 자유화의 흐름 등이 있다. 특히 자본의 세계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구조의 세계화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화에서는 일종의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세계화로 묘사되는 세계 체계는, 세계화되는 지역주의와 지역화되는 세계주의로 구성된 일종의 그물망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들은 세계화되는 지역주의를 수행하며, 후진국들과 발전도상국들은 지역화되는 세계주의를 선택하도록 강제된다. 따라서 세계화는 세계 체계 내에 있는 중심 국가들, 주변 국가들, 반(半)주변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 관계로 이루어진 위계질서를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고착화한다. 이러한 세계화의 측면을 '체계 순응적 세계화'라고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화되는 지역주의나 지역화되는 세계주의로 나타나는 세계화는, 하버마스의 표현법을 적용하여 확대해 보면, '체계가 생활 세계를 식민화하는 현상'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확대 심화되어 관철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만 본다면, 세계화란 중심 국가들에서 작동하는 경제시장 및 행정의 논리가 주변 국가의 체계와 생활 세계를 식민화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과정에 이른다. 이렇게 파악된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자본을 우위에 두는 반자유적, 반인권적, 반민주적인 지배 구조를 고착화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의 흐름은 각국의 고유한 법 문화를 해체하고 주권도 경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자유로운 무역을 목표로 삼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등으로 이루어진 무역규범을 회원국에 적용한다. 회원국은 자국의 법과 정책,

조치 등을 통해 이를 이행하고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 WTO 체제는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는 차별의 철폐를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다.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각국은 자기 나라의 무역 상대국들을 모두 똑같이 대해주어야 한다.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 상품에 대해서도 자국 상품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은 직접적 차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내 정책의 간접적 효과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외국산 제품을 수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리하여 각국 정부가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법과 정책, 조치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TRIPs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 협정은 국가가 특허권 등록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였을 뿐 아니라, 생명권, 건강권, 식량권 등의 증진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국가 권한을 약화시켰다. 특히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국가 권한의 행사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강한 비판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 도하 협정에서 어느 정도 양보가 이루어졌다. 심각한 보건 위기 상황을 야기한 질병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나 특허권자가 권리를 남용할 경우, 예를 들어 구매자가 도저히 구입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각국이 '강제실시' 제도를 시행하여 특허권 여부와 상관없이 복제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이를 시행하기란 쉽지 않다. 2006년 브라질에서, 2007년 타이에서, 강제실시를 시행하려고 했을 때 그 어려움이 드러났다. 당시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강제실시 착수를 멈추지 않으면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2001년에도 국내에 만연한 에이즈에 대처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복제 약을 쉽게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내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때 제약회사들은 TRIPs를 위반하는 국내법을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제소하려고 하였다. 다행히 제약회사들이 다양한 국제적 압력에 굴복하여 제소를 철회하긴 했지만 이런 위험은 여전하다.

WTO 체제하에서는 정부가 인권을 위해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GATT에는 인권과 연결되는 조항으로 제20조가 있다. 이 조항에서는 자유 무역 원칙보다 '비(非)교역성 공공 가치'를 예외적으로 우선할 수 있는 조치로, '공중도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 '인간, 동식물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 '공급이 부족한 제품을 획득하거나 분배하는 데 불가결한 조치'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WTO 분쟁해결기구는 이 조항의 발동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즉, 비교역성 공공 가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고 정당화되려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역을 덜 제한하는 다른 어떤 대안도 상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비교역성 공공 가치를 제시하기란 실제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 결과 현실에서는 인권이 무역의 뒷전에 놓이기 쉽다.

〈다〉

2004년 조류 인플루엔자(H5N1)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 대비 최소 20%'에 해당하는 분량의 치료제를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그런데 유력한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특허권을 가진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가 공장을 완전히 가동해도 WHO 권장량에 맞추려면 앞으로 10년이 걸려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요와 공급의 간극이 너무 커지자 선진국이 앞다퉈 타미플루 확보 경쟁에 나섰다. 로슈의 타미플루 연간 생산량이 4억 명의 인구가 복용할 수 있는 분량밖에 되지 않자, 타미플루는 최고 4~5배나 폭등한 가격에 팔리기도 했고, 남미 국가에서는 9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2009년 당시 한국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신종 플루 치료제는 500만 명분이었는데, 이 중 비축한 220만 명분은 유효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심각한 공급 부족에 직면한 것이었다. 그 시기에 신종 플루의 본격적인 대유행이 예상되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바로 공급 부족 때문이었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를 받은 발명품을 타인이 사용, 즉 생산·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물론 특허권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정지되지도 않고, 특허권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이 있다. 특허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국가 긴급사태나 기타 극도

의 위기 상황, 혹은 공공의 비영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제실시를 허용하고 있다. 질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높은 의약품 가격으로, 혹은 공급이 불충분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우려가 클 때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의약품은 원료가 되는 물질이 특허의 전부이기에, 특허권자가 생산과 판매의 전 과정에 걸쳐 독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제도 쉽기 때문에 독점이 깨질 경우 가격이 독점 때와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제약회사는 강제실시 이야기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킨다. 특허권을 가진 제약회사가 생산을 독점한 상황에서 약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 제약회사는 구매할 능력이 있는 수요자만을 대상으로 약을 공급한다. 이로 인해 질병의 공격을 받아도 부유한 사람은 피해 가고 가난한 사람만 당하는 보건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한다. 1987년 최초의 에이즈 치료제인 지도부딘(AZT) 개발 이후 수십 종의 에이즈 치료제가 개발돼 현재 선진국에서는 에이즈를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처럼 다스리고 있음에도, 매년 200만 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들의 대다수가 아프리카에 사는 것은 다 이 때문이다.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글로벌 보건 위기 속에서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의 제도적 취약성을 소재로 삼아 세계화 현상을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도록 하였다. WTO 체제를 통한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자본의 중시와 인권의 주변화 방치 구조를 세계적으로 확립하는 것임을 생각해보게 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세계화를 핵심어로 삼고, 이론적 입론에 관한 제시문 <가>, 실천적 작동에 관한 제시문 <나>, 현실적 구현 양태에 관한 제시문 <다>를 제공하고, <가>와 <나>를 활용하는 일반 입론의 특정 체계에의 적용, <나>와 <다>를 활용하는 특정 체계의 개별적 구체화 양상, <다>와 <가>를 활용하는 개별적 구체화의 일반 입론 확인이라는 문제 해결의 하강 구도와 상승 구도라는 복합 구도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의 편향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 극복, 즉 공공가치 실현의 정의로운 세계화라는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기대효과를 예정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중 [선택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선택교육과정]의 일반과목</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도덕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고전과 윤리</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4) 사회사상
[12윤사04-05]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평가기준
상 :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td><td>문제 2</td></tr>
</table></td></tr>
</table>

과목명: 고전과 윤리		관련
	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타인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다.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6) 평화와 공존의 윤리 12생윤06-03] 국제 사회의 여러 분쟁들과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 설명을 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평가기준 하 : 국제 사회의 여러 분쟁들과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문제에 관해 윤리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고 실천 방안을 부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 (나) 제시문 (다)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8) 세계화와 평화 [10통사08-01] 세계화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를 조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평가기준 상 : 세계화의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고,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를 조사.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문제 2
성취 기준 2	(4) 사회 정의와 불평등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평가기준 상 :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시문 (가) 제시문 (다)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5) 현대의 사회 변동 [12사문05-04]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평가기준 하 :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의 양상을 제시할 수 있다.	문제 2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1	(5) 세계 시장과 교역 [12경제04-01]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을 중심으로 무역 원리를 파악하고,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문 (나) 제시문

	이해한다. -평가기준 중 :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을 중심으로 무역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다)

나) 자료 출처

-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8	244-250	제시문(가) 제시문(나)	○
통합사회	박병기 외	Visang	2018	233-234 151	제시문(가) 제시문(나)	○
정치와 법	김왕근 외	천재교과서	2019	195	제시문(나)	○
정치와 법	모경환 외	금성출판사	2019	169,175	제시문(다)	○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Mirae N	2019	202-204	제시문(다)	○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교학사	2019	205-212	제시문(가) 제시문(다)	○
고등학교 경제	김진영 외	Mirae N	2019	49-54 138-143	제시문(나) 제시문(다)	○
고등학교 경제	허수미 외	지학사	2019	51-56 137-142	제시문(나) 제시문(다)	○

-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법철학	이상영·김도균	KNOU Press	2016	387-388	제시문(가)	○
인권의 대전환	샌드라 프레드먼 (조효제 옮김)	교양인	2009	152-160	제시문(나)	○
한겨레21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허하라]	홍지은	한겨레신문사	2009	제776호(2009.08.31.)	제시문(다)	○

5. 문항 해설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이상영·김도균,『법철학』, KNOU Press, 2016, 387-388쪽.

<가>는 세계화 주제에 관한 이론적 틀에 해당하는 자료로, 수렴적 보편화로 이해되는 단선적 세계화의 통념 속에 있는 세계화의 이중적 과정과 이를 통해 귀결되는 체계 순응적 세계화, 즉 자본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생활세계의 신자유주의적 식민화 과정이 담고 있는 세계화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 : 샌드라 프레드먼 (조효제 옮김), 『인권의 대전화』, 교양인, 2009, 152-160쪽.
<나>는 세계화 주제에 관한 실천적 체제의 예에 해당하는 자료로,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중심에 두고 무역규범 수립을 통한 '세계화되는 지역주의'와 회원국의 무역규범 이행·준수를 통한 '지역화되는 세계화'를 실현하는 방식과 함께 서구를 중심으로 한 교역적 자본 가치를 우선하고 비서구의 생명권·건강권·식량권 등 비교역적 공공 가치와 국가 권한을 약화시키는 세계화의 내용을 제공한다.

제시문 <다> : 홍지은,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허하라", 한겨레21, 제776호(2009.08.31.).
<다>는 세계화 주제에 관한 구현의 개별 실태에 해당하는 자료로, 세계화를 통한 특허권의 강한 보장이 수요-공급의 불균형에 따라 구매능력에 종속되는 의약품 확보와 그로부터 소외되는 생명권 및 건강권 위기의 국가별 편중 현상과 함께 국가의 강제실시 발동 요건과 실제 발동 자제의 사실을 제시한다.

논제의 구성

※ <가>의 논지를 활용하여 <나> 체제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의 상황이 초래된 요인을 분석하시오. (1,000±100자)
인문계열 2회차 <문항2>에서 제시된 논제는 두 개 물음으로 구성된다.
첫째 물음은 <가>의 논지를 활용하여 <나> 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둘째 물음은 위의 근거하여 <다>의 상황이 초래된 요인을 분석하시오.

이 논술 문항의 주제는 'WTO 체제에서 나타난 세계화의 특성과 인권 보장에 관한 제도적 취약성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논제는 제시문 <가>의 논지를 통해 제시문 <나>가 다루는 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시문 <다>의 현실이 전개되도록 하는 제도적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즉 <가>에서 주장하는 체계 순응적 세계화가 <나>의 체제에서 구체화되는 방식과 확립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삼아 <다>에서 보여주는 현실이 나타나도록 하는 요인을 분석적으로 논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과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세계화, 국제관계, 국제법, 자본주의, 인권 등의 주제를 통해 충분히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논제로, 각 제시문 간의 관계를 구조적이고 논리적으로 살펴보면서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시문 <가>의 논지 파악】	1등급

►제시문 <가>의 논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측정

① 세계화 진행의 두 가지 방식과 특성
- 세계화되는 지역주의와 지역화되는 세계주의로 구성됨
- 주변 국가들의 체계 순응적 세계화를 이룸

② 세계화 과정의 본질적 특성
- 서구의 시장 논리가 비서구의 체계와 생활세계를 식민화하는 과정
-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반인권적 지배구조의 확립과 지속

►예시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 : 세계화, 세계화된 지역주의, 지역화된 세계주의, 그물망, 체계 순응적, 서구 (또는 중심) 국가, 주권, 경제시장, 신자유주의, 식민화, 반인권

【제시문 <가>를 활용한 제시문 <나> 체제 특징 설명】
►<가>의 논지와 대비하여 <나>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 측정

③ 세계화 진행의 두 현상
- WTO 무역규범 채택은 서구 법의 세계화임
- 회원국의 WTO 무역규범의 이행과 준수는 세계화된 법의 지역화임

④ 비서구 국가의 주권 축소
- 국내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정책의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함

⑤ 신자유주의적 내용의 세계화
- 자유 무역 원칙을 우선하고 인권 등 비교역적 가치의 예외 취급

►예시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 : WTO, 무역규범, 세계화된 지역주의, 회원국, 이행·준수, 지역화된 세계주의, 주변 (또는 비 서구) 국가, 주권, 건강권, 강제실시, 자유 무역 원칙, 비교역성 공공가치, 인권, 예외, 뒷전

【제시문 <다> 상황 초래 요인 분석】
►요인과 그 근거를 앞부분의 논지 및 특징과 연결하는 능력 측정

⑥ <다>의 상황 특정
-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 직면
- 질병 대유행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조치 (또는 강제실시) 비 채택 상태

⑦ 정부의 강제실시 비(非) 채택의 국내외적 요인
- 특허권을 강하게 보장하고 강제실시를 제한하는 WTO 규범과 국내법 존재
- WTO법과 국내법의 자유 무역 우선과 비교역성 공공 가치의 엄격 적용

⑧ 보건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처 미흡의 근본 요인
- 근저에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체계 순응적 세계화가 있음

►예시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 : 대유행, 위협, 공급 부족, 정부, 의약품, 강제실시, 특허권자, WTO, 무역규범, 특허법 (또는 국내법), 자유 무역, 비교역성 공공 가치, 경제시장, 신자유주의, 주변 (또는 비 서구) 국가, 체계 순응적, 세계화,

⑨ 언어 사용과 표현력
-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하되 환문하여 본인의 문장으로 글을 써야 함

<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과 ⑨를 모두 충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을 모두 충족하고, ⑨가 다소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중 어느 1가지가 없고, ⑨가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중 어느 2가지가 없고, ⑨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중 어느 3가지가 없고, ⑨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중 어느 4 가지가 없고, ⑨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가 모두 상당히 미흡한 경우	8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9등급

7. 예시 답안

<가>에 따르면, 세계화는 세계화되는 지역주의와 지역화되는 세계주의로 이루어지고, 양자의 그물망구조에 의해 주변 및 반(半)주변 국가들의 체계 순응적 세계화로 나간다. 그리하여 세계화는 중심 국가의 경제시장 및 행정의 논리가 주변국가의 체계와 생활세계를 식민화하는 과정이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반자유적, 반인권적, 반민주적 지배구조를 고착화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이라고 <가>는 주장한다.

<나>의 WTO 체계는 <가>에서 밝힌 체계 순응적 세계화에 해당하는 과정과 내용을 구현하고 있다. 첫째, WTO 체계는 세계화의 두 현상을 보여준다. 중심국가에서 발전해온 자유 무역과 권리가 WTO 체계의 무역규범으로 채택되는 것은 지역의 법이 세계의 법이 되는 것, 즉 세계화된 지역주의를 이루는 것이다. 회원국이 그 규범을 자국의 법, 정책, 조치로 이행·준수하는 것은 세계의 법이 지역의 법으로 되는 것, 즉 지역화된 세계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둘째, WTO 체계는 무역규범의 세계화를 통해 주변 국가의 주권을 축소하고 있다. 자국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정책이라도 WTO 체제로 인하여 주변 국가가 자유롭게 택할 수 없다. 셋째, WTO 체계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견지한다. WTO에서는 자유 무역 원칙이 우선하고 인권과 같은 비교역성 공공 가치를 극히 예외로 취급하여 인권이 경시되고 있다.

<다>의 상황은 신종 플루 대유행이 예상되면서 생명권과 건강권이 잠재적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가 강제실시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은 의약품을 특허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강제실시를 엄격히 제한하는 WTO 무역규범이라는 세계법과 이를 지역화한 국내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권과 건강권의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은 WTO 무역규범과 국내법이 자유 무역 원칙을 우선하고 생명권과 건강권이라는 비교역성 공공 가치를 예외적으로 다룰 뿐 아니라 그 적용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보건 위기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의 근저에는 기본적으로 경제시장의 논리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주변 국가의 체제 순응적 세계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094자]

2-5. 문항카드 ⑤ <인문계열 3회차 1번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교시) / 문항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도덕,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기억, 역사, 공동체, 서사, 정체성, 재현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60분	

2. 문항 및 자료

〈가〉

기억과 정체성의 관련성 문제는 1980년대 이후 매우 시의적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이것은 이 시기 세계 도처에서 정치적, 문화적 경계가 무너지고 다시 정립되던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가령 유럽에서는 동서의 경계선이 붕괴되면서 냉전의 기억들로 점철된 한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동구권에서는 민족적인 정체성들이 되살아났고, 그와 더불어 그들의 언어, 문화, 역사와 신화들이 함께 소생하였다. 당시 이러한 양상은 '역사의 귀환', '역사의 소생'과 같은 말로 표현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대해 전문 분야에서 다루는 학문적 연구의 의미가 아니라, 생생하게 보존되었거나 새로이 유발된 집단의식, 즉 '기억된 과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역사는 예기치 않게 일차적인 정치적 원동력이 되었다. 이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다.

오늘날 자신의 본질을 규정한다는 것은 성적, 종족적, 정치적 문제에 따라 스스로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예학자 테레사 테라우레티스는 정체성을 "자신의 역사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자, 그러한 자신의 역사를 담론적으로 중재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정의한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공동으로 기억하고 망각하는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정의한다는 뜻이다. 기억의 개조는 곧 정체성의 개조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나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역사 교과서의 개정, 기념비의 파괴, 공공건물과 지명의 개칭 등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나〉

'사건'의 기억은 어떻게 해서든지 타자, 즉 사건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집단적 기억, 역사의 담론을 구성하는 것은 사건을 체험하지 않은 타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에게 그 기억이 공유되지 않으면, 사건은 없었던 일로 되어 버리고 만다. 일어나지 않았던 일로 되어 버린다.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존재는 타자의 기억 저편, 세계의 외부로 내던져지게 되어 역사로부터 망각된다.

역사학자 뷔달-나케는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의 존재를 부정하는 유럽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사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역사와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 사건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역사수정주의자들을 '기억의 암살자들'이라고 말한다. 타자의 존재를 지워버린 예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언급할 수 있다. 이 영화는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주의에 대항하며 휴머니즘을 체현하고 있는 미국의 국민주의를 칭송한다. 그러나 이것이 부조리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과 집단적

인 기억에서 배제된 사건들을 부인하고 망각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이야기되지 않은 사건 하나가 예컨대 베트남 전쟁이다. 영화는 마지막 부분에서 50년이라는 세월을 단번에 건너뛰며, 1970년대 미국 사회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긴 그 사건이 마치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현재의 라이언의 모습을 비춘다. 마지막 장면에서 피에 젖어 나부끼는 성조기가 상징하는 것은 미국인을 위해 미국인이 흘린 피일 따름이다. 미국인으로 인해서 흘린 타자의 피, 타자의 죽음을 영화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미국인에 의해 살해당한 베트남 사람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여기에서는 완전히 망각되고 있다.

사건의 기억이, 사건의 기억에 매개되어 사건 자체가 타자에게 공유되어야만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야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건의 외부에 살고 있는 타자들에게로 이르는 길, 그 회로를 우리는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건이 언어로 재현된다면, 반드시 재현된 현실 외부에 누락된 사건의 잉여가 있게 된다. 사건의 폭력을 현재형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유로 그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말을 지닐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사건은 말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건의 기억을 타자와 공유하기 위해서.

사건을 체험하였고, 그 사건의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의 폭력을 지금도 계속하여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 또, 학살 사건처럼 그 폭력을 온몸으로 체험한 자, 즉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폭력, 그 사건에 대하여 증언할 수 없다. 바로 그런 이유로 타자가 사건을 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타자가, 사건의 외부에 있었던 제삼자가 증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자들을 대신하여 그 사건을 제멋대로 표상하여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말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말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건의 말할 수 없음 자체를 증언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다〉

면장 이미 들으셨겠지만, 칠산리로 자동차 길을 냅니다. 산허리를 잘라내고 골짜기를 메워야 길이 나는데, 그 무덤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많이 달라진 거죠. 칠산리라면 이름 그대로 산이 일곱, 험한 산 일곱이 사방을 둘러막아서..... 예전 난리 땐 빨갱이 소굴이었다고 냉대와 멸시 받던 곳인데.....

장남 우리 어머니 무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으면 합니다.

면장 안 됩니다. 오늘 안으로 옮기세요. 그 무덤 때문에 길 늦어진다고 칠산리 주민들이 야단입니다.

자식들 우리는 아직 다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로선 중대한 문젭니다. 어머니의 무덤을 옮긴다는 건. 자식들이 다 모여서 의논해 본 다음에 결정짓겠어요.

면장 내가 처음 면장이 되어 이곳에 부임해 왔을 때, 사무 인계를 하면서 전임 면장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조심하게, 이곳 주민들은 과거의 사람일세.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었죠.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 사람들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 난리 속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솔직히, 난 그것이 싫습니다. 내가 산 사람들의 면장이 아닌, 유령들의 면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장남 (우울한 표정이 되며) 사실은,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도 기분 좋을 리 없죠. 특히 우리들은요. 아무리 현재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도..... 과거는 우리를 꽉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군요.

면장 그 반대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당신들이 과거를 붙잡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자, 지금이라도 놓아버리세요! 칠산리의 그 무덤 옮기는 것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장남 우린 아직 다 모이지 않았습니다. 면장님, 우리는 다 모여서 의논해 봐야 합니다.

면장 당신이 기다리는 그가 꼭 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칠산리 무덤 옮기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장남 글쎄요.....

면장 누가 나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다."

장남 누가 나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는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면장 사실이냐구 나에게 물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대답할 문제죠!

장남 글쎄요..... 우리들 사상이 위험하다는 혐의를 받는 건..... 우리가 경험한 그 기억들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건 세상이 잘못된 거지 우리 잘못은 아녜요. 그런데도 부당하게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어요! 면장님 입장이 어떻다는 건 우리도 잘 압니다. 칠산리에 길을 내야 하구, 그러려면 무덤을 옮겨야 하는데, 이 기회에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겨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면장님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 칠산리 주민들 모두의 희망인데, 그것은 칠산리로부터 우리들 흔적을 깨끗하게 제거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1. '기억'의 문제에 대한 〈가〉와 〈나〉의 논지를 비교하여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상황을 논하시오. (1,000±100자)

3. 출제 의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중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공동으로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역사 서술, 문학 서술, 박물관이나 기념관 등을 통하여 사회 속에서 '이야기'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억압되는 기억이 발생하기도 한다.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있는 역사적 폭력의 사건들, 공적 서사에서 배제된 과거 사건들을 잊지 않고 다시 이야기해 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공동체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본 문항은 과거 역사에 대한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 형성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가> 지문과 역사 속에서 배제되고 억압된 기억의 문제를 '이야기하기'의 의미를 통해 다루는 <나> 지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상황, 즉 폭력으로 얼룩진 과거를 지우고 망각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려는 공동체와 역사적 폭력의 희생자이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역사로 인해 그 시간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개인들 간의 갈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본 문항은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출제되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중 [문학]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한국사]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 관련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5) 문학 문학 갈래의 특성과 한국 문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66쪽)	문제 1 제시문 (나) (다)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 수용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며,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문학의 수용과 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문학 활동을 즐기고 그 결과를 자유롭게 소통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125쪽)	문제 1 제시문 (나) (다)
성취 기준 2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125쪽)	문제 1 제시문 (나) (다)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6) 평화와 공존의 윤리 우리 사회, 민족 공동체, 지구 공동체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 민족의 평화, 지구촌의 공존을 위한 윤리적 과제를 탐구하여 진정한 사회 통합과 민족 통일 및 지구촌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도덕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45쪽)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3.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한국사		관련
성취 기준 1	(1)우리 역사의 형성 [10한사01-01] 역사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과거를 현재의 삶과 관련지어 인식함으로써 역사를 학습하는 목적을 이해한다. (143쪽)	문제 1 제시문 (가)

과목명: 한국사		관련
성취 기준 2	(7)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냉전이 시작되는 속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과정,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의 전개 과정,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본다. 전후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며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이룩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눈부신 고도 경제 성장의 과정 및 그로 인한 사회·문화의 변화상을 살펴본다. 또한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탈냉전,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확인하고,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10한사07-01]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파악하고, 6·25 전쟁의 발발 배경 및 전개 과정과 전후 복구 노력을 살펴본다. (150쪽)	문제1 제시문 (가) (나) (다)

나) 자료 출처

-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기억의 공간	일라이다 아스만	그린비	2011	81-82	제시문 <가>	X
기억/서사	오카 마리	소명출판	2004	147-149	제시문 <나>	○
칠산리	이강백	평민사	1992	90-92 115, 117	제시문 <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이숭원 외	좋은책신사고	2020	64-65	제시문 <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지학사	2020	182-185	제시문 <나>	○
고등학교 한국사	최준채 외	금성	2020	254-259	제시문 <가>	○

5. 문항 해설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일라이다 아스만,『기억의 공간』, 변학수 외 옮김, 그린비, 2011, 81-82쪽.

제시문 <가>는 한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억된 과거'라고 말한다.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신화, 역사, 이야기, 기념물, 지명 등이 '과거에 대한 기억'을 만드는데, 공동체는 이를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가'하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동체가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구성한다는 문제이기도 하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할 것인가를 통해 자신이 정의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억의 개조는 곧 정체성의 개조이다.

제시문 <나> : 오카 마리, 『기억 · 서사』, 김병구 옮김, 소명출판, 2004, 147-149쪽.

제시문 <나>는 과거의 '사건'이 망각되지 않고 기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야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타자들'과 '기억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건을 언어로 재현하면 반드시 재현된 현실 외부에 누락된 부분, 말해지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역사 속에서 부당하게 억압되거나 배제된 사건, 사건의 폭력성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에 말할 수 없거나 말하기 어려운 사건도 존재하게 된다. 사건 외부의 타자, 즉 제삼자에 의한 '이야기하기'와 이를 통한 '타자들과의 기억의 공유'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사건 당사자를 대변하겠다는 오만을 경계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사건'을 '이야기 하는 일'의 중요성을 필자는 강조한다.

제시문 <다> : 이강백, <칠산리>, 평민사, 1992. 90-92쪽, 115쪽, 117쪽.

제시문 <다>는 '한국전쟁 중 빨갱이 소굴'이었다는 세간의 평을 듣고 있는 칠산리를 배경으로 하여 '어머니의 묘지 옮기기'를 둘러싼 '면장'과 '자식들'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면장과 마을 사람들은 칠산리의 발전을 위해 길을 내야 하니 묘를 옮겨달라고 자식들에게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 이유이며 그 이면에는 '위험한 사상' '빨갱이' 등으로 표현되는 한국전쟁 중 칠산리에서 일어난 사건, 폭력의 과거,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자식들의 존재를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 면장은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당장 묘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식들은 아직 다 모이지 않았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한다.

<논제의 구성>

본 문항은 두 개의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기억'의 문제에 대한 〈가〉와 〈나〉의 논지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둘째, 이를 바탕으로 〈다〉의 상황을 논하시오.

본 문항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 형성의 관계를 다루는 <가> 지문과 배제되고 억압된 기억의 문제를 '이야기하기'와 '기억을 나누어 갖기'의 의미를 통해 다루는 <나> 지문을 이해하고, 두 지문이 모두 '공동체의 기억' '타자와의 기억 공유'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런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에 나타난 '면장'과 '자식들'의 갈등 상황, 즉 폭력으로 얼룩진 과거를 지우고 잊은 채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려는 공동체와 폭력의 희생자이자 여전히 그 시간을 살아가며 고통 받고 있는 개인들 간의 갈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도록 하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논지를 비교하고 서술】 • 두 지문의 요지를 각각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 • 두 지문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찾고 각 지문의 관점을 비교 ① <가>의 논지 파악 : 과거의 역사에 대한 한 집단의 공동의 기억이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기억과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 ② <나>의 논지 파악 : '이야기하기'와 '기억 나누어 갖기'의 의미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재현 문제와 타자들과의 기억 공유의 의미를 다루고 있음 ③ <가>와 <나>의 논지 비교 : 두 지문 모두 '공동체의 기억' '타자와의 기억 공유'의 중요성과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 <가>는 민족 정체성 형성과 같은 집단적 기억의 문제를 중심으로, <나>는 역사로부터 배제되고 억압된 기억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 • 예시답안의 전반부 참조 • Key Word : 제시문 가) 기억,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집단의식, 기억된 과거, 역사를 능동적으로 구성, 기억과 망각, 기억의 개조 제시문 나) 사건, 기억, 이야기, 기억의 공유, 집단적 기억, 타자들, '기억의 암살자들', 망각, 언어적 재현, 재현의 어려움, 제삼자, 증언 【<가>와 <나>의 논지를 활용하여 <다>의 상황을 분석】 ④ 마을사람들을 대표하는 면장과 자식들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 • 갈등의 원인이 표면적으로는 개발의 논리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난 과거에 대한 기억과 망각의 문제가 있음을 파악 ⑤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것'의 관점에서, 공적 역사로부터 억압되고 배제된 사건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서술 • 예시답안의 후반부 참조 • Key Word : 한국전쟁, '빨갱이 소굴', '위험한 사상', 과거의 사람, 기억, 망각, 억압과 배제, 부당한 고통과 박해, 흔적을 깨끗이 지우기 <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고, 논리적 구성과 언어 표현력이 명확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과 언어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한 가지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한 가지가 부족하고 구성과 표현력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두 가지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세 가지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한 두 가지만 답하고 답안의 충실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거의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글자 수가 800자 미만인 경우	8등급
	문항의 요구와 무관한 답안을 작성하였거나 글자 수가 600자 미만인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7. 예시 답안

제시문 <가>와 <나>는 모두 '공동의 기억', '타자와의 기억 공유'의 중요성과 역사적 의미를 논한다. 이를 <가>는 민족 정체성 형성과 같은 집단적 기억의 문제를 중심으로, <나>는 역사로부터 배제되고 억압된 기억과 이를 타자들이 나누어 갖기 위한 '이야기하기'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제시문 <가>는 한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억된 과거'라고 말한다.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신화, 역사, 이야기, 기념물, 지명 등이 '과거에 대한 기억'을 만들며, 이를 통하여 공동체는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정체성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제시문 <나>는 '사건'이 기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야기'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타자와 기억이 공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사건의 언어적 재현은 그 외부에 이야기되지 못한 채 누락된 부분을 만들기 때문이다. 또, 부당하게 억압되고 배제된 사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기에 말하기 어려운 사건도 존재한다. 때문에 사건 당사자를 대변하겠다는 오만을 경계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일'의 중요성을 <나>는 강조한다.

제시문 <다>는 '한국전쟁 중 빨갱이 소굴'이었다는 칠산리를 배경으로 '묘지 옮기기'를 둘러싼 '면장'과 '자식들'의 갈등을 보여준다. 면장이 앞세우는 것은 칠산리의 발전을 위한다는 개발 논리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위험한 사상' '빨갱이' 등으로 표현되는 폭력의 과거, 그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 <가>와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칠산리 주민들과 면장은 폭력으로 얼룩진 불편한 과거를 지우고 역사를 왜곡, 수정하려는 자들이다. 묘지를 없애는 일은 그 시작으로, 장소를 지움으로써 과거를 부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식들'의 존재를 지워 망각하려는 '기억 암살자들'과 같은 시도다. 공적 역사로부터 부당하게 배제되고 억압된 과거를 증언하고 기억하는 일은 공동체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우리가 누구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079자]

2-6. 문항카드 ⑥ <인문계열 3회차 2번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3교시 / 문항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언어와 매체,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현대사회매체, 사회문화현상, 매체문화에 대한 비판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6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2】(45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답하시오

계 열 문 항 2

〈가〉

같은 단어를 같은 검색창에 검색해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 새로운 세대의 인터넷 필터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살펴본다. 당신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당신과 같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살펴보고 추론한다. '예측 엔진'들은 끊임없이 당신이 누구인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고 또 할 것인지에 대한 고유한 정보의 바다를 만든다. 사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특정 내용은 걸러지고,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내용만이 먼저 표시된다. 어느 기업은 당신이 어떤 기사를 주로 읽는지, 지금 기분이 어떤지를 알고 긍정적인 면에서 당신의 기호에 맞춘 광고를 띄워줄 수도 있다. 필터링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당신은 엄청난 분량의 일상생활 데이터를 기업에게 넘기는 셈이 된다. 기업들은 데이터를 이것저것에 써보면서 매일 매일 더 정확한 정보를 만들고 있다.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입맛에 맞는 매체만 즐겨 찾았고, 나머지는 도외시해왔다. 개별화된 필터가 이렇게 강력한 유혹인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에 휩쓸리고 있다. 매일 90만 개의 블로그가 만들어지고, 5천만 개의 트위터 글이 올라오고, 6천만 개의 페이스북 계정이 업데이트되며, 2,100억 개의 이메일이 오고간다. 구글 CEO 에릭 슈미트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2003년까지 인류의 의사 전달 내용을 모두 기록한다면 50억 기가바이트 정도 된다. 지금 우리는 단 이틀 만에 그 만큼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현실은 미디어 전문가인 스티브 루벨이 '주의력 붕괴'라고 부르는 현상을 불가피하게 불러온다. 거리가 멀고 사람이 아무리 많더라도 통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전보다 엄청나게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많은 정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를 다 챙길 수는 없다. 우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다가 이메일로 동영상으로 옮겨 다닌다. 온종일 밀물처럼 밀려드는 정보를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기에 바쁜 것이다. 이때 개별화 필터가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개별화 필터는 우리가 알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는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이 과정을 거쳐 선별되어 제공되는 온갖 선명한 사진이나 생생한 동영상은 개인들에게 또렷하게 인지되기 십상이다.

〈나〉

"그는 매일 담배를 세 갑씩이나 피웠는데도 나이가 백 살이 넘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은 해가 될 수 없다.", "함부르크는 안전한 도시다. 나는 블랑케제네(독일 함부르크의 한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는 평상시에는 물론이고, 휴가를 떠날 때조차 대문을 열어놓고 다닌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도둑이 든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담배가 수명과 상관이 없다거나 함부르크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독일어 단어들 가운데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을까, 아니면 R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을까? 정답은 'R로 끝나는 단어가 두 배는 더 많다.'이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대답한다. 그 이유는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빨리 떠오르기 때문이다.

가용성 편향(availability bias)은 자신의 경험 혹은 자주 들어서 익숙하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머릿속에 더 잘 떠오른다고 해서 현실에서도 보편적인 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용성 편향 때문에 우리는 그릇된 카드를 머릿속에 삽입한 채 세상을 돌아다닌다. 비행기 추락, 자동차 사고, 살인과 같은 죽음의 위험을 시스템적으로 과대평가하고, 당뇨병이나 위암같이 덜 주목받는 죽음의 위험은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비행기 추락이나 폭탄 테러에 의한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드물게 일어난다. 반대로 암으로 인한 죽음은 훨씬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구경거리가 되고 현란하거나 떠들썩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너무 높은 개연성을 부여하고,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낮은 개연성을 부여한다. 구경거리가 되고 현란하거나 떠들썩한 것이 뇌리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 뇌는 양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극적으로 생각한다.

특히 기업체의 이사회 사무실 안락의자에는 가용성 편향이라는 벌레가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자리잡고 있다. 그곳에 모인 이사들은 4분기 실적표나 프로젝트 성과분석표 등 경영진이 제시한 숫자들을 보며 토론한다. 경영진에서 보여주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것들, 이를테면 경쟁자들의 강점이나 근로자들의 근무 동기 약화 또는 고객들의 태도 변화 등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간단하게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나 처방들을 의사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이용한다. 그래서 종종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다〉

로마교황청은 성인(聖人)을 승인하는 시성식(諡聖式)에 앞서 찬반 토론을 벌이도록 했는데, 찬성하는 쪽은 '신의 지지자', 반대하는 쪽은 '악마의 변호인'이라 했다. 악마의 변호인은 교황청이 부여한 역할이기에 자신의 진심과는 무관하게 반대 의견을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임무의 성격상 '신앙의 촉진자'로 불리기도 했다.

초창기 1,000여 년간 교회의 성인 추대는 다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별로 분권화되어 있었다. 지역교회에서 대중적 정서를 기반으로 성인 추대가 가능했는데, 순교자, 신앙에 헌신한 인물, 그리고 특별히 독실한 삶을 살아왔다고 인정받는 인물에게도 성인의 직위를 내렸다. 그 결과 각 지역마다 성인의 수가 넘쳐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런데 성인 후보 측에서 제출한 내용은 대부분 천편일률적이었다. 이에 다수 교회 관료들은 독립적인 조사관으로 활동하는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성인 추대에 반대 의견을 밝힐 사람을 지명했다. 악마의 변호인 역할은 성인으로 추대될 후보자들의 덕행과 그들이 기적을 행했다는 평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에 대해 악마의 변호인은 사기나 우연 혹은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함

을 설파하여 반대자 역할을 수행했다. 추대를 위해 제출된 모든 근거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후보자에게 불리한 근거들을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었다. 악마의 변호인은 수십 년간 계속되기도 하는 시성 절차 기간 동안 반대 의견과 입증 자료를 작성하여 교황청에 제출하는데, 성인 추대가 최종 결정되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교황에게 보고되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추대된 성인들은 그 이전에 추대된 성인들에 비해 실제 숫자는 적어졌지만, 더 권위를 가진 성인으로 인정받았다.

〔문제 2〕 〈가〉의 상황이 〈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다〉를 활용하여 〈가〉와 〈나〉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1,000±100자)

3. 출제 의도

-<문제 2>를 출제한 의도는 편향성이라는 주제로, 현재 인터넷의 검색엔진이 활용하는 필터링 알고리즘이 개인 혹은 기업의 정보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임.

-편향적 정보 습득을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는 현재 디지털 매체환경을 분석하고 인터넷 이용자 혹은 기업, 인터넷 기업관점에서 정보의 편향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파악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출제 의도임.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사회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사회·문화</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3. 문화와 일상생활
(2) 대중문화를 어떻게 바라볼까
정보문화의 특징을 인터넷 매체와 관련지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진다.
① 대중문화와 대중 매체 (113쪽)
② 대중문화의 기능 (114쪽)
5. 현대의 사회변동
(2) 정보화에 어떻게 대응할까
정보화의 의미와 영향을 파악하고,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입수하는 정보의 편리함의 긍정성과 일방성, 편향적 가능성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파악하는 자세를 가진다.
① 정보화의 의미와 양상 (183쪽)
② 정보화의 영향 (184쪽)
③ 정보화에 따른 대응방안 (185쪽)</td><td>제시문 (가)</td></tr>
<tr><td>성취기준 2</td><td>1. 사회·문화현상의 탐구
(2) 사회·문화현상을 보는 관점에는 무엇이 있을까</td><td>제시문 (나)</td></tr>
</table></td></tr>
</table>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개인이 가진 편향성이라는 본원적인 심리현상으로, 누구나 개인의 경험이나 충격적인 외부자극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인지적 특성을 파악한다. ① 문화현상의 미시적 관점 (15쪽) 2. 사회문화현상을 탐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자료 수집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30쪽)	
성취기준 3	1. 사회·문화현상의 탐구 (3) 사회·문화현상의 탐구절차와 윤리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연구자가 자신의 선입견과 주관적 가치, 이해관계 등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반대되는 정보를 참고하여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객관적 태도라 한다. ① 객관적 태도 (37쪽) ② 개방적 태도 (38쪽) ③ 사회·문화 현상탐구에서의 가치개입과 가치중립 (40쪽)	제시문 (다)
성취기준 4	3. 문화와 일상생활 (2)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화양상 대중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보와 지식이 가능성을 알고 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 ① 대중문화의 비판적 수용 (115쪽) 5. 현대의 사회변동 (2) 세계화와 정보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인은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내손으로 개인정보를 지키는 법, 인터넷 기업이 해야할 일도 중요하다. ① 정보화에 따른 대응방안 (185쪽)	제시문(가), (나), (다)

나) 자료 출처

-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각 조종자들	엘리 프레이저 이현숙·이정태 번역	알키	2011	15-17	제시문(가)	○
스마트한 생각들	롤프 도벨리 두행숙 번역	걷는 나무	2014	157-161	제시문(나)	○
레드팀	마이카 젠코 지음 강성실 번역	스핑크스	2008	6-9	제시문(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문화	손영찬 외	Mirae N	2020	15-18	제시문 (나)	×
고등학교 사회·문화	서범석 외	지학사	2020	111-114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사회·문화	서범석 외	지학사	2020	38-41	제시문 (다)	×

5. 문항 해설

<문제2>는 <가>의 디지털 매체 환경, 예측 엔진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알고리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렇듯 인터넷이 제공하는 정보 필터링 현상이 가용성 편향 특성을 본래부터 가진 수용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이 첫 번째 세부질문이다. 두 번째 세부질문은 디지털 매체환경이 편향성을 강화하고,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 입수에도 가용성 편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편향적 의사결정, 정보 의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반대정보, 객관적 정보의 필요성과 그 해결방안을 탐구하는 문제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논지 이해】 • 각 지문의 핵심을 이해하는 능력 측정 • ① 제시문 가)의 예측엔진의 필터링 기능이 현재 작동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 기업이 개인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편향성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파악. • ② 제시문 나)의 개인이나 기업이 가진 가용성 편향 특성이 있음을 파악하고, 개인들은 자극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동시에 파악. • 예시답안의 전반부 참조 • Key Word : 제시문 가) 예측엔진의 필터링, 수용자 정보를 활용한 알고리즘, 정보의 홍수, 필터링을 통한 개인 맞춤형 정보, 자극적인 정보는 더 인지됨 제시문 나) 개인이 가진 가용성 편향, 현란하고 떠들썩한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 기업 이사회 의사결정에서 가용성 편향에 의존하는 경향 【<가>의 상황이 <나>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관계 파악】 • ③<가>의 예측엔진이나 필터링, 알고리즘 기능을 활용하면 <나>의 가용성 편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 측면 대두됨, 정보의 편식, 개인이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편향적(일방적)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을 강화시킬 가능성. • ④개인이나 기업은 가용성 편향이 있는데 필터링 기능으로 인해 더욱 편향된 정보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 • ⑤<가>의 상황이나 현재 환경은 <나>가 본래 가진 편향성에 더 부정적 측면으로 영향을 준다는 부정적 측면 가능성을 기술하였는지 평가할 것. • 예시답안의 전반부 참조	1등급

	• Key Word : 필터링과 알고리즘은 가용편향성을 더욱 강화 가능성, 개인이 좋아하는 정보에만 더 의존하게 될 가능성,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에 더 의존하게 될 가능성 【<다>의 논지로 <가>, <나>의 문제점 개선방안 기술】 • 수용자 (개인) 관점에서 <다>의 악마의 변호인 개념으로 <가>의 필터링, 알고리즘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편향성 경계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기술하였는지 평가할 것. • ⑥수용자 (개인 혹은 기업) 관점에서 <다>의 악마의 변호인 개념으로 <나>의 가용성편향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평가할 것. • ⑦정보 공급자 관점에서 <다>의 악마의 변호인 개념으로 <가>의 필터링 기능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평가할 것. • ⑧정부와 같은 규제기관 관점에서 <가>의 필터링 기능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평가할 것. • 예시답안의 후반부 참조 • Key Word : 개인은 반대되는 정보에 의식적으로 노출되도록 해야, 타인 의견 적극적 경청, 기업은 객관적 정보에 의해 의사결정 해야, 예측엔진은 개인정보 수집에 더 신중히 해야, 정부(규제기관)는 인터넷 기업 (예측엔진)에 대한 필터링 기능에 대한 역할 감시와 규제 <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①혹은②, ③혹은④, ⑤, ⑥을 모두 충족하고, 핵심어를 포함한 경우	2등급
	①혹은②, ③혹은④, ⑤, ⑥을 충족하고, 핵심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3등급
	①혹은②, ③혹은④를 충족하고, 핵심어를 포함한 경우	4등급
	①혹은②, ③혹은④를 충족하였으나 논지 파악이 다소 부족한 경우	5등급
	①혹은②, ③혹은④를 충족하였으나 논지 파악이 안 된 경우	6등급
	①혹은②, ③혹은④를 충족하였으나 일방적 문장 요약만 한 경우	7등급
	①혹은②, ③혹은④ 둘 중 하나만 쓰고 논지 파악이 안된 경우	8등급
	글자 수 300자 이하, 전혀 논지 파악인 안 된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7. 예시 답안

<가>의 구글과 같은 예측 엔진은 수용자들이 보낸 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즉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수용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정보의 바다에서 헤매는 수용자들에게 필터링 과정을 거쳐 내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해주지만, 이러한 정보는 수용자 취향과 입맛에만 맞는 편향된 정보일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원래부터 각 수용자가 가진 <나>의 가용성 편향이라는 심리적 현상에 더해져 정보편식 현상을 강화시킨다. 왜냐하면 수용자의 가용성 편향이란 각 수

용자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기억이나 경험, 생생한 정보에 의존하여 더 기억하는 인지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예측엔진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는 원래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가진 가용성 편향을 더 강화시켜 다른 정보를 배제하고, 본인이 보고자 하는 정보, 듣고자 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게 함으로써 치명적 오류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다>의 '악마의 변호인' 개념을 활용하여, <가>의 예측엔진 이용자들은 나와 경험과 견해가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나>의 개인은 세계를 바라볼 때에 개인경험이나 기억 등에만 의존하지 않고, 반대정보를 활용하여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나>의 기업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 즉 편향된 정보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고, 반대의 시각에서 작성된 자료, 반대 입장의 자료를 균형적으로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즉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가용성 편향을 벗어나기 위해서 '악마의 변호인'제도와 같이 반대의 입장, 반대되는 정보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여 검토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 예측엔진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개인이 가진 취향만을 이용한 필터링이나 알고리즘 과정만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하는 방식을 벗어나 수용자들에게 객관적 정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균형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같은 규제기관도 이러한 예측 엔진의 알고리즘 문제점을 파악하여 편향된 정보제공을 막는 규제도 고려할 수 있다.